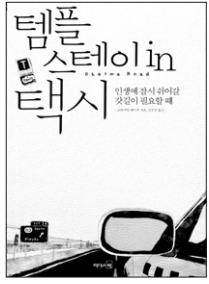


# 택시운전사 道道를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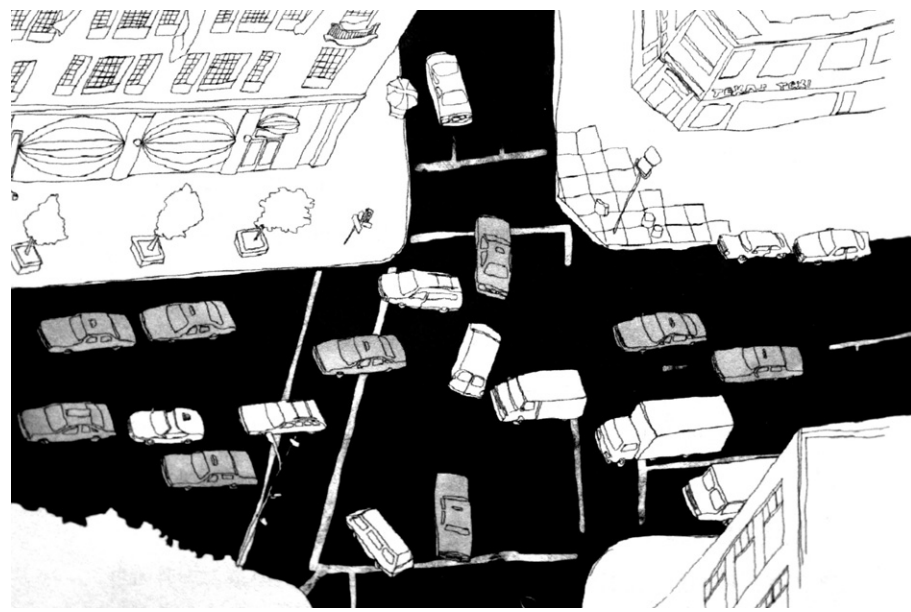
브라이언 헤이콧의 도로 위 단상



**템플스테이 in 택시**  
브라이언 헤이콧 지음  
김수진 옮김  
리더스북 펴냄  
1만4000원

택시를 타면 질문을 받는다.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시죠?” 그런데 지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길 원하는가? 책은 묻는다. (템플스테이 in 택시)의 저자 브라이언 헤이콧은 美 텍사스주에서 열정적인 환경 운동가였다. 메사추세츠주립대를 졸업하고 비영리환경단체 이콜로지 액션 오브 오스틴에서 활동했던 그였지만 파산하게 됐고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을 하게 됐다. 그런 그가 택시와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템플스테이를 말하는 까닭은 승산 스님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그의 택시에는 승산 스님의 <선의 나침반>이 늘 비치돼 있다. 저자는 승객을 태워 목적지를 묻고나면 잠깐 동안 최상의 경로를 생각해 본 후 곧 운전전을 시작한다. 저자는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비유한다. 그리고 선의 목표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실에 만족하지는 가르침도 저자는 여법하게 실천하고 있다. “시선을 높은 곳에 맞추라고 말하지만 그건 맞지 않다. 만일 시선을 높은 곳에 고

정한다면 바로 지금 내딛고 있는 발걸음에 초점을 두지 못할 것 아닌가. 시선을 길에 두라.” 저자는 실직과 파산이라는 힘든 일을 겪고 뒤흔어진 삶의 의미를 가져다줄 무언가를 갈구했다. 그러다 우연히 불교를 만났다. 짧은 강의였지만 그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저자는 “시작은 그저 우연이었고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불교를 선택한 것은 내게 꼭 필요한 일이었고 그 선택이 내 삶을 치유하고 풍요롭게 해줬다”고 말한다. 불교를 만나기 전 택시운전은 생계수단에 불과했다. 매일매일 러시아워 속에서 택시를 운전해야 하는 고단함, 손님을 기다리는 지루한 일상. 저자의 하루는 매일이 그렇고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불교를 만나고 저자의 삶은 크게 변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 택시운전이 인생이고, 인생이 택시운전이었다.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늘 자신을 되돌아본 그에게 행단은 목탁과 같았다. 날마다 만나는 승객들은 선지식이요, 그들을 태워다 주는 곳마다 도량이였다. 저자는 한 흑인 여성을 삶의 고통을 모아놓은 곳 가운데 하나인 병원에 데려다주며 부처의 사문유관을 떠올린다. 그리고 흰색 리무진에 골프 가방을 신는 젊은 남자들을 목격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했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를 생각한다. 그리고 말한다.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고 원하는 무언가가 보이면 그저 가리키기만 해도 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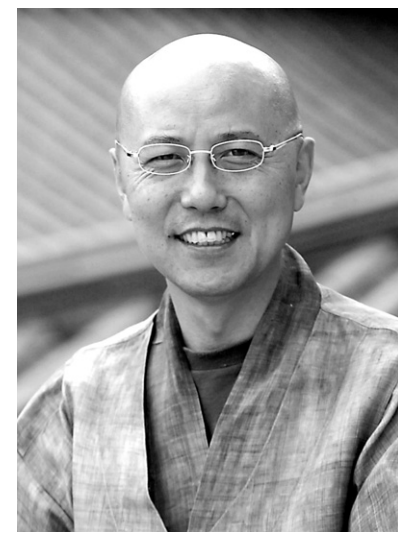


택시운전을 하는 브라이언 헤이콧은 인생은 택시운전과 같다고 말한다.

수 있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삶은 공허와 슬픔이라는 시련으로 변했다. 결국 약물과 과다복용으로 변기에 앉으려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엘비스가 이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성취할 수 없었다면 대체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 희망이 있었느냐”고. 저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주변을 살핀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하지, 글을 읽는 당신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는 “인생은 엄청나게 좋을 때도 있고 참담할 만큼 안 좋을 때도 있으며 그 중간일 때도 많다... 클럽하우스에서 멋진 저녁식사를 하는 이들의 삶이 영원히 고통 없는 삶이 아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아픔

을 겪을 것이고 그러고나면 자신의 본성에 대해 배우고 인생의 슬픔을 초월하는 법을 알아갈 것이다. 부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책의 다른 한쪽에서는 운전과 마음공부에 대해 말한다. 주의를 집중해 운전하는 첫단계는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며 라디오와 핸드폰 등을 예로 든다. 그 해결책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용하도록 두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말한다. 나이키 광고에서 말했듯이 “그냥 해보라 (Just do it)”고.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종매쟁이 스님의 이야기



육천 대성사 혜철 스님은 ‘종매쟁이 스님’으로 불린다. 출가자로서 수행과는 거리가 멀고, 자칫 비아냥으로 들릴 말이지만 스님은 아랑곳 않는다. 종매를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수년째 해오고 있다. 스님의 뜻밖에도 남다른 수행은 870여 쌍의 부부인연을 만들어 냈다. 이쯤 하면 ‘종매의 달인’이다. (스님의 종매쟁이)는 저자 혜철 스님이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속세에서의 삶과 출가 과정, 출가 후의 다양한 활동과 인연들, 종매쟁이가 된 사연과 일화,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등을 진솔하게 써내려간 자전 에세이다. 저자는 책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적고 있다.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가 스님이신 게 너무나 싫었다. 아니, 부끄러웠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번엔 어머니가 스님이 되셨다. 나는 스님이 되기 싫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두었다. 그러나 운명처럼 나도 스님이 되었다. 그렇게 내가 받았던 아픔을 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그리고 아들 역시 운명처럼 스님이 되었다. 스님은 나의 운명이다! 저자는 매주 일요일마다 범회를 열어 ‘선남선녀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저자는 짝 맺어주기에 열중한 자신을 이렇게 변호한다. “인연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고,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은 행복한 삶으로의 지름길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회를 밝히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종매를 통한 짝 맺어주기는 절망하고 마음고생 하는 이들과 그 부모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보살심의 발로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조동섭 기자



**스님은 종매쟁이**  
혜철 저  
윤주사 펴냄  
1만 2000원

# 부처님 가르침따라 내 아이 키우기

전생·윤회 바로 알면 아이의 미래가 보인다

전생(前世)은 있을까? 달라이 라마와 임상심리학자 등은 전생이 있다고 말한다. 성철 스님은 “정신과학 분야의 발달로 영혼이 있다는 것이, 윤회가 있다는 것이, 인과가 있다는 분명히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전생과 윤회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면 불교를 안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책 <전생의 DNA를 찾아야 성공한다>는 오산원당초등학교 교감인 저자가 우리 아이들이 갖고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그것을 개발시켜 주라고 적은 육아 참고서이다. 작은 느티나무 씨앗 하나가 집채만 하게 성장할 DNA를 갖고 있듯이, 씨앗 하나에 우주가 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잠재된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모두 천재성을 갖고 있으며, 아이의 전생의DNA를 찾고 싶다면 아이의 평소 생활을 관찰하라고 조언한다. 깨어있는 부모들은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아이를 관찰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설명이다. 아이의 능력을 찾았다는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며, 아이에게 행복을 찾아줄 것을 말하고 있다. 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책의 사이 사이에는 부처님과 큰 스님의 법문이 있어 보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전생의 DNA를 찾아야 성공한다**  
민병직 지음  
도피안사 펴냄  
1만 3000원

# 무소유의 시대에 완전한 소유를 말하는 법

지리산 수행자의 마른 똥막대기



**마른 똥막대기에 번개 쳤다**  
홍일 지음  
자연과 인물 펴냄  
1만3000원

“어쩌면 완전한 소유가 되냐고 물어온다. 양탈 짓는 마음을 내려 놓으라고 했다. 마음 그릇에 담긴 욕심과 근심을 쏟아버리고 미소만 가득 채워 놓으면 완전한 소유가 된다고 했다.” (마른 똥막대기에 번개 쳤다)는 지리산 깊은 산골 청허산방에서 산차를 만들며 자

유로운 바람처럼 살고 있는 홍일 스님이 쓴 책이다. 스님은 무소유를 부르짖는 세상에 완전한 소유를 말한다. 그러면서 “다 될 수도 없고/ 다 이룰 수도 없는 것이다/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잃을 수도 없는 것이고/ 될 만큼만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 걱정이라”라고 적는다. 내 집 한 채 갖고 살기도 팍팍한 세상, 스님은 마음에 해우소 한 채씩 지어놓을 것을 권유한다. 가질 것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 내 맘대로 되지 못하는 일들이 나를 괴롭히거든 마음 속 해우소로 가란다. 거기에 폭 눌러 앉아 다스리고 다스리다 보면 세상 먼지 얼룩이 빠져 쏘아 내어 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힘이 생겨난다.

스님은 “세상의 주인은 없다. 모두가 주인이다”라고 강조한다. 몸과 마음의 자유부터 챙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다스리고 부릴 줄 아는 다음 완전한 소유를 꿈꾸라고 말한다. 그러면 천하가 모두 내 것이라는 말도 한다. 불안한 세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자는 고독을 권한다. 고독을 즐기 못하는 사람은 불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고독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라. 고독을 즐기다 보면 고고(孤孤)한 독(毒)이 쌓인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중독이 되면 끈관하니 해독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독을 빼기 위해서는 고독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약이라. 저자는 술직하다. 윤패하다. 한톨의 가식도 없이 맨몸의 살아있는 고독을 보여준

다. 갑갑하고 불안한 우리들의 인생살이를 따뜻하게 살살 데워주는 저자의 말은 염치 없는 인간들의 욕망을 꼬집어 비튼다. 저자는 유별나다. 품 잡는 경전이나 종교의 엄숙주의를 버리고 쿨하고 개똥 있게 사는 법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며 우리 시대의 삶의 플랜을 제시해 준다. 책 커버에는 “똥 냄새 작렬하는 세상 지랄발광하는 인간들에게 지리산 수행자가 내리치는 마른 똥막대기의 통쾌한 맛”이라고 적고 있다. “내 마음의 해우소는 제 기능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 볼 일이다. 상락아정(常樂我淨)의 해우소! 그곳에 쭈그리고 앉고 고요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완전소유에 대한 해답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 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내 내내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 108염주 만들기 순서

<p><b>1</b>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시개</p>	<p><b>2</b>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시개로 해결합니다</p>	<p><b>3</b>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p>	<p><b>4</b>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p>
<p><b>5</b>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p>	<p><b>6</b>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 줄로 통과시킵니다.</p>	<p><b>7</b>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펜던트를 끼웁니다. 다시 마강염주 줄로 통과시키면 됩니다.</p>	<p><b>8</b> 이때 펜던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p>
<p><b>9</b> 두 줄로 2회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p>	<p><b>10</b> 다시 매듭을 3번 험껏 조이면 됩니다.</p>	<p><b>11</b>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 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p>	<p><b>12</b> 108염주 완성 심원산인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555</p>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안마들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